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4월 19일 수요일 (음 3월 23일) 제179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5·9 촛불대선 D-20 대선후보 농업공약 '관심 집중'

'농심(農心)을 잡아라'

'5·9 촛불대선'을 20여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정책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주요 후보들의 농업분야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쌀값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쌀 생산조정제와 소비확대로 쌀 생산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쌀값 안정을 위해 논에 벼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해 옥수수, 콩 등 부족한 곡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감소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가 수매 공공비축 확대와 대북쌀지원, 남북 농업협력위원회 재가동 등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쌀값 대책과 관련해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홍 후보는 '김영란법' 기준에서 농·축·수·임산물을 적용대상에 제외하고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가의 농산

쌀값 문제 해결책은?

문재인, 물가상승률 반영 쌀 목표가격 인상·소비 확대

안철수, 논에 다른 작물 재배 부족한 곡물 자급률 제고

심상정, 국가수매 공공비축 늘리고 남북농업협력위 재가동

후보자들의 농업정책

문재인, 농어업특별위 설치 농어인산재보험 등 내세워

안철수, 유전자변형 수입 위해식품 관리 강화

홍준표, 김영란법 기준 농특산물 적용대상서 제외

심상정, 45세 이하 청년 취업농 월 100만원씩 정착금 5년 지급

물을 담보로 정부나 지자체가 이자,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문 후보는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어인산재보험과 100원 택시도입, 가축질병 백신 국산화,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농업재해 보험법 지원기준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축산물·농식품 먹거리의 질병 일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전자변형식품(GMO) 및 수입 위해식품 관리 강화, 학교급식 확대개편, 백신은행 설립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친환경 농축산물 직불금 1당ha 연 300만원 지급, GMO의 상업적 개발 금지, 45세 이하 청년 취업농 월 100만원씩 정착지원금 최대 5년간 지급, 65세 미만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 등을 약속했다.

각 후보들의 야심찬 공약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재정 및 조세개혁 등을 통한 정부 재원활용이나 복지증세, 재정투입 순위조정 등 다소 무리몰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재용 기자



시민들과 함께 '엄지척'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전북대학교 후문에서 진행된 집중유세에서 엄지척을 하고 있다. 이날 집중유세에서는 5000여명의 시민들이 몰려왔다. <관련기사 3면>

"지역인재 선발 할당제 시행할 것"

문재인 후보, 전주 방문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전주에서 "지역 인재 선발 할당제를 시행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전주 덕진노인복지관을 찾은 문 후보는 이 같이 밝히고, 전북지역의 낙후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전북혁신도시(전주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이어 관련 민간 기업도 이전하도록 만들겠다"며 "혁신도시 시2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한 공공기관과 기업에 지역인재 의무채용 30%를 적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가 균형발전정책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 정부시절에 추진됐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균형발전을 후퇴시켰다"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당시보다 훨씬 강력한 국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전북을 호남권역으로 묶지 않고 전북과 전남을 독자권역으로 구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말로 최근 화두로 떠오른 '전북 묶 찾기'를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인재용 기자

서남대 인수자, 내일 이사회서 결정

희망 기관은 서울시립대·삼육대·부산 온병원 대학 구 재단 등 4곳... 전주 예수병원 등은 포기

폐교 위기에 놓인 서남대학교(남원 소재)의 새로운 인수자가 20일 사실상 결정된다.

서남대 임시이사회(이사장 김화진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는 20일 이사회를 열어 '재정기여자' 즉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서남대는 이홍하 이사장의 구속 사태를 빚은 지난 2014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임시 이사회 체제로 운영중이다. 임시이사회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전국 4개 기관으로부터 서남대 인수 의향서를 받아 자격 검토에 들어갔다.

서남대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은 ▲서울시립대 ▲삼육대 ▲부산 온병원 ▲서남대 구(옛)재단 등이다.

당초 서남대 인수 의사를 가진 전주 예수병원과 서울 명지병원 등은 자금 조달과 내부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최종 포기했다.

임시이사회는 지난 14일 서남대 교수와 직원, 학생, 학부모 대표 등 총

189명을 초청해 놓고 4개 기관으로부터 인수 의향 및 차후 계획 등을 듣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에는 4개 기관 중 서류 심사 명목을 내세워 '구재단측' 만 불참했다.

설명회 이후 교수 직원 및 학생, 학부모 대표들은 1순위로 서울시립대를 선호했고 2순위로 부산온병원, 마지막으로 삼육대를 선호했다.

임시 이사회는 4곳중 2곳을 우선협상 대상자(1위, 2위)를 선정 한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18일 설명회를 내고 "서남대 의대 인수만을 고려한 선정에 반대한다"며 "학교 전체를 살리는 방안을 가진 기관의 인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남대 인수자 선정을 앞두고 교육 당국이 갑자기 서남대 총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하는 비리 내역을 발표해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민근 기자

혁신도시 악취저감 24시간 감시체계 구축

도, 김제용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 무인포집기 설치

전북도는 혁신도시 악취 유발생지인 김제용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 무인악취포집기 2기를 이달 중에 설치 완료하고, 5월초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악취민원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도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악취 유발물질이 사라져 버려 효과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자동 악취포집기는 악취발생시 단속공무원이 현장까지 가지 않고 스마트폰을 사용해 원격으로 악취를 포집하도록 설계돼 있어 장소와 시간 제약 없이 24시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장의 경우 악취 발생시에는 언제든 악취포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각심을 갖고 악취 유발시설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인 악취저감 노력을 기울이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북도는 2016년 대비 악취 20% 개선을 목표로 국립축산과학원 등 중앙정부, 시군과 업무협력을 통해 13개 악취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혁신도시 거주민 20명으로 구성된 악취모니터단 운영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이번에 설치한 무인악취포집기와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 요원 50%이상이 악취를 느낄 경우 악취 자동포집기에 신호를 보내 즉시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시설을 개선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특히 올 3월 모니터 요원 응답율을 분석한 결과 전년도 3월에 비해 악취 강도 및 발생빈도가 감소하는 등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3월 중 응답자 전원이 악취를 전혀 느끼지 못한 날은 16일로 지난해 11일에 비해 5일이 증가한 반면, 50%이상이 악취를 느낀 날은 4일로 전년도 3월의 6일보다 2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용 환경녹지국장은 "악취모니터단 운영과 무인악취포집기를 연계 활용으로 24시간 악취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올해 설치한 무인악취 자동포집기 운영실태를 분석해 효과가 클 경우 내년도에는 추가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악취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매일 INDEX
2면 - 'GM'작물 파종·연구 중단하라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아름다운 선거

고사동 영화의 거리 내 옥토주차장 : 전주 라운지

나와, 영화보자

| 영화 상영 후 공연까지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 '전주 돔 상영' + '뮤지션, 영화와 만나다' |

4. 28 Fri 19:00~
<파리의 밤이 열리면>
+ 공연: 페퍼톤스/솔루션스

4. 29 Sat 19:00
<아수라>

4. 30 Sun 16:00~
<이반 차레비치와 공주>
19:00~
<내 사랑>

5. 1 Mon 19:00~
<리베라시옹 데이>
+ 공연: 라이브호

5. 2 Tue 19:00~
<마스터>

5. 3 Wed 19:00~
<로스트 인 파리>
+ 공연: 멜로망스/치즈

5. 4 Tur 19:00~
<리를 하버>

+ 스페셜 공연: 요조 "나.아.당.공"
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스

5. 5 Fri 14:00~

<패트와 매트:
뚝뚝뚝 대소동>(무료상영)
19:00~
<정글북>
+ 무료공연: 디에이드
(어쿠스틱 콜라보)/오웬

※ 아티스트 일정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Jeonju Intl. Film Festival

전주국제영화제 전주 돔 상영
Jeonju Dome Screening